



4면
거점국립대 학생들, 독도서 화합 의치다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음 5월 26일) 제353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자치도 - 전주시 - 전북대 - 캠티종합기술원

메카노바이오헬스 전문인력 키운다

북지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내년까지 총 22억원 투자
혁신의료기기 연구·생산
규제과학 전문 130명 양성



“화이팅”... 2024 전주가맥축제 가맥지기 발대식
우범기 전주시장(사진 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전주시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린 '2024 전주가맥축제 가맥지기(자원봉사자) 발대식'에 참석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전북대학교, (사)캠티종합기술원이 미래 첨단 전략산업인 바이오 분야를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전북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메카노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이하, 인력양성센터)' 공모를 전주시, 전북대학교, (사)캠티종합기술원과 함께 최종 선정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인력양성센터는 미래 의료현장 수요 맞춤형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해 바이오 헬스 전문인력 양성을 신중 감염병 및 만성질환 등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새로운 혁신의료기기 개발과 보건 의료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인력양성센터 공모 선정으로 각 기관은 바이오산업 공동 육성하고자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4억원 등 총 22억을 투자해 기업 재직자와 대학(원)생, 취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혁신의료기기 연구 및 생산, 규제과학 전문가 130여명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에, 우수 인력 채용 강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기초 교육(개발인력 양성 프로그램) △실무 교육

(제품과 전문인력 양성) △심화 교육(사업화 인력 양성 과정) 등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어 기업 수요에 맞는 실무 경험이 축적된 전문 인력 양성 체계로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지역의 강점인 혁신의료기기(메카노바이오, 탄소소재) 인프라 및 연구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다하고자 이미 구축한 △중재

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탄소 소재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센터와 연계해 실습형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현재 건축하고 있는 △메카노바이오융합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와 작년에 선정된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연구개발과 제품개발 등 선순환 체계 확

립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자치도가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메카노 바이오 혁신의료기기 지원 전주기 체계의 완성을 위해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이오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민간주도 기술창업활성화 정책 '탄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부 틱스 운영사 선정
도내 운영사 2022년 '곳'에서 올해 '6곳'으로 증가
자치도와 협력... “투자생태계 질적 성장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달 28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가 중소벤처부 틱스 운영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틱스는 중소벤처부가 선정한 투자자(틱스 운영사)가 글로벌 진출 기술역량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해 1억 이상 선투자하면, 중소벤처부가 기업당 7억에서 최대 15억원의 지원금을 매칭하는 사업이다.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후속투자 유치 등 정책적 효과가 입증됐지만, 2022년까지 지역 내 틱스 운영사 없어 도내 창업기업이 선정에 어려움이 컸다.

민선 8기 이후 전북자치도는 창업지원과 성과를 신선했다. 1조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계획하고 지역 내 틱스 운영사 확대를 노력하며, 민간주도의 기술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이번 전북센터 선정으로 도내 TIPS 운영사는 6개가 되었다. 수도권 유망 투자사인 크립톤, 소풍벤처스, 로우파트너스, 스케일업파트너스 4개와 공공AC인 JB기술지주(2023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2024년) 2개가 틱스운영사로 활동한다.

틱스 운영사가 늘어나며 틱스 선정기업의 확대가 기대된다. 도내 틱스 선정기업은 2022년 2개에서,

2023년 8개 선정됐으며, 2024년 5월까지 2개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2023~2024년 최소 104억 이상 민간투자 및 국비R&D 자금을 확보하며 기술창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전북자치도와 전북센터 간의 협력의 결과물이다. 자치도는 수도권 유명 틱스 운영사를 유치하며 전북센터에 선정 및 운영 노하우를 이전시키는 한편 벤처 펀드 투자금 확보를 지원했다.

센터 또한 틱스 운영사 선정을 위해 지난 몇 달간 별도의 TF팀을 운영하고, 50억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에 선정되는 등 투자역량 강화에 노력해왔다.

강영재 전북센터장은 “틱스 운영사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창업생태계뿐 아니라 투자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후 후속 투자 연계 및 추가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이현서 창업지원과장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내실 있는 틱스 운영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도내 기술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청사진 마련

전북자치도, 3개년 기본계획 수립... 경쟁력 강화·공동사업 활성화 등 3개 과제
현재 제조·도소매·서비스업 등 도내 44개 협동조합 운영 중... 전국 4.5% 수준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조합원사의 경영안정 지원 3가지이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인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중소

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정책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한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전북 중소기업 주간행사 등을 통해 사기진작과 경영 의욕을 고취시킬 예

정이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협동조합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영세 소상공인 공동 마케팅 지원, 공동브랜드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합원사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3개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현재 도내 4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412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전국 총 986개 조합, 조합원 6만6,842명의 전국 4.5% 수준이다.

도내 협동조합의 업종은 제조업 22개, 도·소매업 11개, 서비스·기타업 11개이며, 제조업종은 건설업 관련 콘크리트, 아스콘, 레미콘 종목이 다수, 도·소매업은 슈퍼마켓, 상점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